

## 생태자원의 활용사례(2) : 식물관찰 등 생태체험<sup>1)</sup>

현진오<sup>2)</sup>

(주)동북아시아식물연구소장

### 시작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 가운데 하나인 식물은 무기물로부터 최초의 유기물을 생산함으로써 지구 생태계를 부양하는 유기 에너지 생산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식물은 뿌리, 줄기, 잎을 기본으로 하여, 생식기관인 포자 또는 꽃을 가지고 있어, 예로부터 관광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 여겨져 오기도 했다.

식물의 관상적 가치에 대한 접근 방식은 산업혁명 이후 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제적인 여유와 여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물의 관상적 가치를 앉아서 즐기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자생지를 찾아가서 보고 즐기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즉, 과거에는 야생종 또는 원예종을 화단에 심어 감상하는 것으로서 식물의 가치를 즐겼다면, 근래 들어서는 야생상태에 있는 원종의 자생지를 찾아가 관찰하며 즐거움을 얻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귀족과 호사가들을 중심으로 한 박물학자들이 탐험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식물 자생지를 탐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레 식물 에코투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주 건조한 사막에 살며 밤중에 육지를 덮는 안개로부터 수분을 흡수하는 웰위치아(*Welwetschia*)라는 희귀 나자식물의 자생지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막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있고, 이런 생태여행 상품도 개발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식물연구소가 주최한 태백산 꽃산행에 참가한 생태여행객들이 갈퀴현호색을 관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식물 자생지를 찾아가서 즐기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매화꽃 축제, 산수유 축제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물 생태여행과 여행상품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자생식물의 자생지인 산과 들을 찾아가

1)Using Cases of Ecological Resources (2) : Ecotourism for Wild Flowers in Korea

2)HYUN, Jin-Oh, The Director of Northeastern Asia Plant Institute. E-mail: flowerhyun@koreanplant.info

서 식물을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행사도 많이 생겨나는 상황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이러한 경향은 몇 해 전부터 디지털카메라 보급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더욱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20여 년 전 동호인 모임이 생기기 시작한 이래, 인터넷을 중심으로 더욱 많은 모임들이 생겨나서 지금은 식물동호인 모임이 전국적으로 100여 개 이상이나 된다.

**식물관찰 산행인 “꽃산행” 서비스표 등록**

4월이면 서울을 노랗게 물들이는 앓은벵이꽃을 보고 그저 민들레라고들 부른다. 어디서도, 누구도 이를 서양에서 들어와 토착화한 귀화식물 서양민들레라고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 아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서양민들레와 민들레가 다른 호랑이와 표범이 다른 것만큼 분명한 것임에도 그러하니 우리 사회의 생물학적 지식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우리 산과 들에 자라는 자생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고, 산과 들로 그 꽃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이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 볼고 있는 우리나라 꽃과 나무에 대한 관심이 식물학자, 생태학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것이어서 희망이 커 보인다. 우리 꽃을 보기 위해 자생지를 찾아가는 현장파들의 조용한 움직임은 10여 년 전부터 ‘꽃산행’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꽃산행은 이제 생태계 관련 인터넷 동호인 모임 어디서나 즐겨 쓰는 새로운 용어로 정착되어, 마니아들에게 친숙한 단어로 자리 잡았다(표 1).

꽃산행은 말 그대로 ‘꽃을 보기 위해 떠나는 산행’이다. 등산 전문지를 통해 선보이기

**표 1. 꽃산행의 정의(동북아식물연구소 리플릿에서 발췌)**

**<꽃산행이란?>**

- \* 꽃산행은 꽃을 보기 위해 떠나는 여행으로서 생태계 탐방의 한 형태입니다.
- \* 꽃산행은 등산을 하며 자생식물을 관찰함으로써 생태계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이들의 보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1993년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 \* 꽃산행은 작은 의미의 생태여행(ecotourism)이자 진정한 의미의 생태여행입니다.
- \* 꽃산행은 동북아식물연구소 현진오박사가 만든 새로운 용어로서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 꽃산행은 전문가로부터 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관찰하며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은 산행입니다.

시작한 꽃산행은 당시, 산을 찾는 이유로 ‘걸어오름’ 외의 목적이 하나 더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 라는 소박한 물음에서 출발해, 맹목적이고 물리적인 산행만 할 것이 아니라 산과 들에 저절로 자라는 자생식물을 관찰하며 산행의 즐거움을 더하자는 목적산행의 하나로서 시도되었다.

그러면서 생태계 구성원인 식물들과 친숙해지려는 노력을 통해 인간도 지구 생태계를 이루는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식물 사랑의 구체적인 마음을 기르며, 나아가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생물종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의도도 있었다. 그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 대다수의 취미가 ‘등산’임에도, 산행을 하며 무의식적으로 많은 식물을 보고 스쳐 지나지만 우리 산천의 우리 꽃 이름을 대라면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 자연에 대한 우리의 지식수준인 시절이었다.

우리 꽃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자생식물 재배, 국립 또는 사설 식물원 탐방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마니아들은 이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자생지의 우리

꽃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식물원에서 인위적으로 키워 가꾸는 식물과 자생지에 저절로 자라는 식물에서 느끼는 감흥이 전혀 다르다며 주말마다 산과 들로 꽃을 찾아 나서는 현장과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자연에서는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제각각 환경에 적응하여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식물체 크기가 다르고, 어떨 때는 꽃 색깔조차도 다를 때가 있어요.” 주말마다 10년째 우리 꽃 자생지를 찾아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어느 마니아는 “나에게는 이것 자체가 감동으로 느껴지며, 식물원에 심어놓은 식물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말한다.

꽃산행을 하는 이들은 자연에서 발견한 식물들을 사진으로 찍거나 그림으로 그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번 만난 식물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다. 요즘은 촬영이 좀더 쉽고, 인터넷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가 많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꽃산행을 할 생각이라면 카메라 하나 정도는 장만하기를 권한다. 시간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투자하는 사람만이 오래도록 취미활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식물을 촬영하는 것만이 만사는 아니다. 발견한 식물을 스케치하는 것도 좋고, 시상을 메모해 두었다가 시작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 어떤 이는 “평의바람꽃, 얼레지 가득 핀 봄 산에 하루 종일 앉아 봄꽃들과 대화하였는데, 그렇게 편안한 시간은 난생 처음 가져보았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이것이 꽃산행의 또 다른 참맛이기도 하다.

꽃을 보러 산으로 들로 떠날 때는 넉넉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넉넉함이야말로 찾아 가는 식물을 배려할 줄 아는 자세를 낳게 한다. 꽃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다음에 촬영 조건이 더 좋은 것을 만나서 찍지”하며 돌아설 수 있는 여유

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광선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식물을 파 옮겨서 찍는 우를 범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점에서 버스에서 잠자며 시간을 아끼는 무박산행으로 꽃산행을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꽃을 보러 함께 가는 인원은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한두 사람이 지나가도 식물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데, 꽃을 촬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때는 5~7명 정도, 관찰만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20명 정도가 적당하다.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팀을 나누어야 한다. 함께 움직이는 사람 수는 대상지가 습지인지 고산환경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며,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서 같은 코스를 산행하는 게 생태계에 영향을 덜 준다.

전문가 안내 없이 꽃산행을 하려면 어디서 어떤 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게 고민스럽다. 따라서 출발하기 전에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내 것으로 익히는 것이 필수다. 또한 봄철에는 습한 계곡에서 꽃이 피는 식물이 많고, 여름에는 높은 산 능선과 숲 속, 그리고 가을에는 높은 산 능선과 초원, 훼손되지 않은 저지대 들뜬에 계절을 대표하는 꽃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여 대상지를 정하면 도움이 된다. 봄꽃의 경우, 서울 근교에서는 이미 지고 없어졌더라도 강원도 높은 산에 가면 늦게까지 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다. 함께 갈 사람들과 전문가의 안내가 있으면 꽃산행의 재미와 효율은 배가되게 마련이다.

꽃산행 다니는 많은 이들은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라는 데 회의적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 꼬집는다. 대신에 모든 생물종들은 지구상에서 인간과 똑같이 살아

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철학적 무장으로 생태계의 구성원들과 친숙해지려는 노력 때문에 우리 사회의 자연보존 의식은 한층 더 진보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불붙은 생태여행에 대한 논의도 생태계 이해에서 이런 선구자적 의식을 접목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꽃산행은 작은 의미의 생태여행이자 진정한 의미의 생태여행인 것이다.

꽃산행은 동북아식물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용어 자체를 만들어낸 것도 이 회사이고,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을 한 것도 바로 이 연구소다.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 연구소는 식물연구 사업 외에도 생태교육 및 생태여행을 수익 모델로 삼고 있다.

### 식물관찰 중심의 교사연수 프로그램

우리 꽃과 나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식물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하며, 식물보전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이 분야 전공자들은 대부분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상황이지만 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은 몇몇 대학의 관련 학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으로 이는 전공자들만을 위한 것으로서 교사를 비롯한 사회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에서 식물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전무한 현실이다.

동북아식물연구소의 <초중고 교사를 위한 자생식물 워크숍> 프로그램은 생태 및 생물

교육 일선에 있는 교사들에게 자생식물에 대한 이론 및 실재를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이 분야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습득케 하고자 개설되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교육을 마친 교사들이 학교 교육에서 이 분야 전문 교육자로 활동함은 물론, 교사단체, 환경단체 및 지역사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생태학교, 생태여행 등에서 현장 지도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이론 30시간, 야외실습 80시간 등 총 110시간으로 이루어진다. 교사들은 이 프로그램 연수를 통해, 식물 교육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습득하고 있다. 이론교육은 20가지 주제에 대해 1~2시간씩 실내 강의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식물 학습에 필요한 이론적인 부분을 익히고 있다(표 2).

야외실습은 총 10회에 걸쳐 전국의 산과 들에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1박 2일 일정으로 이루어지며, 봄꽃 150종류, 여름꽃 100종류, 가을꽃 100종류 등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월에 많은 꽃을 관찰할 수 있는 남부 지방의 내장산, 월출산 등을 시작으로 서울 근교의 천마산, 유명산, 광덕산, 축령산, 강원 지역의 금대봉, 태백산, 설악산, 방태산, 대관령, 석병산, 그리고 수생식물을 관찰하기 좋은 동해안 석호, 경산 등지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다(표 3).

동북아식물연구소는 이 프로그램을 마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생태계 이론 중심의 생태 교육 또는 환경 교육에서 탈피하여, 직접적으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 가운데 하나인 식물들이 중심주제가 되는 생태 교육 및 환경 교육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즉, 교사 스스로 종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이론 중심의 생태 및 환경 교육을 펴

표 2. 2006년 교사 식물워크숍 이론교육 내용

번호	강의 내용	시간
1	생물 교사는 왜 식물종을 알아야 하는가?	2
2	생물다양성의 이해(생물다양성과 보전생물학이란?)	1
3	식물분류학이란? 분류학의 방법론	1
4	생물교사가 꼭 알아야 할 계절별·지역별 우리꽃	2
5	식물 관련 도서 소개 및 평가	1
6	식물종을 어떻게 익힐 것인가?	1
7	식물촬영을 하면 왜 좋으며, 어떻게 하나?	2
8	꼭 알아야 할 식물의 기관 및 식물분류학 기재 용어	2
9	식물계를 어떻게 나눌까?(식물분류 시스템)	2
10	식물의 학명과 국명은 왜 중요하며, 어떻게 붙일까?	1
11	식물표본과 표본관은 왜 중요한 것일까?	1
12	식물표본은 어떻게 만들까?(실습 포함)	2
13	이것만은 알자!(알쏭달쏭 헛갈리는 식물 구분하는 법)	2
14	왜 멸종위기인가?(한국의 멸종위기식물 현황과 보존대책)	2
15	한국의 환경(교육)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2
16	에코투어리즘과 생태학습	1
17	심층생태학이란 무엇인가?	1
18	생태계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2
19	식물 야외탐사는 어떤 점을 고려하여 기획해야 하나?	1
20	학교에서 식물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자유토론)	1

표 3. 2006년 교사 식물워크숍 야외실습 대상지

월	대상지	주요 관찰 식물
3	내장산	민대극, 산자고, 복수초, 변산바라꽃, 길마가지나무
4	천마산	얼레지, 만주바라꽃, 집현호색, 얇은부채, 생강나무
	태백산	한계령풀, 선쟁이눈, 갈퀴현호색, 피나무, 처녀치마
5	축령산	너도바라꽃, 당개지치, 알록제비꽃, 논쟁이냉이, 분꽃나무
	설악산	봄구슬봉이, 금강애기나리, 나도옥잠화, 털진달래, 땃대이나무
6	방태산	자주솜대, 큰산장대, 구실바위취, 할미밀망, 백당나무
7	가야산	산오이풀, 흰여로, 솔나리, 백리향, 노각나무
8	금대봉	큰제비고깔, 둥근이질풀, 노랑투구꽃, 각시취, 구슬땃대
9	석호, 대관령	애기머느리밥풀, 해란초, 둥근바위솔, 투구꽃, 꿩의비름
10	석병산	개쑥부쟁이, 산국, 나도송이풀, 솔채꽃, 털댕강나무

는 현실에서 벗어나, 식물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생태 및 환경 교육을 실현하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동북아식물연구소는 이 프로그램 수료자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생태계의 구성원들

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태여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연수 프로그램은 2003년부터 진행되어 지난해 3기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2006년 현

제 4기 교육이 진행중이다. 졸업생들은 환경부의 사단법인 한국교사식물연구회를 결성하여 식물상 조사, 멸종위기식물 사진전, 현장교육 지침서 개발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꽃산행시 고려하는 원칙들

식물을 관찰하기 위해 자생지를 찾아가는 행위에는 몇 가지 원칙이 수반된다. 동북아 식물연구소의 꽃산행이나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야외실습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고 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식물종 및 그 식물이 자라고 있는 생태계의 보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인원을 제한하고, 그룹별로 이동하며, 식물 채취를 금지하는 등 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 같은 직접적인 노력 외에도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식물종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한다.

또한, 식물관찰 여행에서는 주최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식물이 자라는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식물과 생태계 보전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전에 대한 경제적인 보답을 받을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경제적인 이익 창출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생태계 및 식물 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점에서 식물탐사 여행은 밤늦게 출발하여 새벽에 산에 오르기 시작해서 식물만을 관찰하고 바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짜여지면 곤란하다. 가급적 시간 여유를 가지고 식물 자생지 부근에서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며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자생지 인근의 지역문화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지를 선택할 때는 관찰하고자 하는 식물이 많은 곳이 첫 번째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여건이 맞지 않을 때는 과감히 그 대상지를 포기하여야 한다. 대상지 선택의 고려사항으로서는 1) 참가 인원 수, 2) 참가자의 체력 수준, 3) 참가자의 식물에 대한 지식수준, 4) 출발시간, 귀가시간, 산행시간 등 탐사의 전체 시간, 5) 관찰하고자 하는 식물의 개화기(인터넷 정보 및 기존 탐사기록 정보 활용), 6) 산불경방기간, 자연휴식년제 등 출입금지 구역 및 기간, 7) 숙소(반드시 대상지 인근 주민 운영하는 곳을 이용하고, 식사도 가능하면 그곳에서 해결), 8) 특별한 마을의 문화, 전통 등을 꼽을 수 있다.

대상지 내에서 식물관찰 코스를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1) 참가 인원-생태계에 압력을 가할 만큼 많은 경우 파티 배분 등으로 조절함, 2) 참가자의 체력 수준-산행 시간 조절, 산행 강도(빠르기 등) 조절, 3) 참가자의 식물 숙지 수준, 4) 시기-개화 여부, 입산 통제 코스 여부, 5) 위험 요소의 존재 여부-절벽길, 폭포, 소, 희미한 등산로, 계곡 건너는 곳 등, 6) 멸종위기종 존재 여부 및 공개 여부, 7) 기획자가 사전 답사 등을 통해 등산로는 물론 탈출로 등을 숙지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도 고려한다. 1) 과제 또는 유인물 배포를 통해 참가자들이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함, 2) 생태투어의 일반적인 고려 사항을 참가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함-정서적인 여행, 교육적인 여행 강조, 3) 기획자(경제적인 관점) 및 참가자(인간적 관점)는 현지 주민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함, 4) 참가자가 탐사를 통해서 식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참가

자는 조그만 것에도 감동할 수 있음을 고려함, 6) 참가자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부득이 함께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 저수준 모두를 배려해야 함, 8) 여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식물과 생태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등이다.

### 앞으로 과제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여행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업화 가능성이 밝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꽃산행은 시의적절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아직까지는 시장성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실제로 여행업등록

표 4. 2005년 동북아식물연구소의 월별 꽃산행 대상지

월	대 상 지
3	백양사, 천마산
4	축령산, 주흘산, 동강, 태백산, 청태산
5	유명산, 소백산, 영월, 태백산, 금대봉
6	설악산, 방태산, 태백산
7	남덕유산, 금대봉, 가야산
8	금대봉, 설악산
9	백양사, 선운산, 비슬산
10	유명산, 영월, 황금산

을 하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식물관찰 여행을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식물연구소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3년 동안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행사를 마련해 보았지만, 실제로 행사가 이루어진 횟수가 많지 않았다(표 4). 봄철에만 반짝하는 관심도 문제인데, 봄

표 5. 우리나라의 주요 꽃산행 대상지

대상지	소재지	탐사 적기	주요 관찰대상 식물	비고
가야산	경남, 경북	여름	산오이풀, 물매화, 산취손이, 한라송이풀, 백리향, 노각나무, 흰참꽃	국립공원
금대봉	강원	봄, 여름, 가을	한계령풀, 태백기린초, 동자꽃, 하늘나리, 둥근이질풀, 구슬땀덩이, 요강나물	생태계 보전지역
내장산	전남, 전북	봄, 여름	변산바람꽃, 길마가지나무, 민대극, 약난초, 백양꽃, 비자나무, 굴거리나무	국립공원
설악산	강원	봄, 여름, 가을	얼레지, 털진달래, 눈잣나무, 금강애기나리, 투구꽃, 분비나무, 요강나물, 만병초, 바람꽃, 산솜다리, 만주송이풀	국립공원
소백산	경북, 충북	봄	모데미풀, 연령초, 홀아비라미꽃, 주목, 노랑무늬붓꽃, 금강제비꽃, 덩굴개별꽃	국립공원
울릉도	경북	봄, 여름	큰연령초, 섬괴불나무, 선현삼, 섬바디, 섬초롱꽃, 섬괴불나무, 두메부추, 넓은잎산마늘, 섬노루귀, 고추냉이, 주름제비난	
유명산	경기	가을	억새, 조팝나물, 금강초롱꽃, 왕쑥배, 산구절초, 참산부추, 자주꽃방망이, 분취	
지리산	경남, 전남, 전북	봄, 여름, 가을	참바위취, 산오이풀, 노랑매미꽃, 누른종덩굴, 지리터리풀, 기생꽃, 히어리, 산철쭉, 철쭉나무	국립공원
천마산	경기	봄	복수초, 앓은부채, 나도바람꽃, 평의바람꽃, 얼레지, 미치광이풀, 처녀치마, 점현호색, 생강나무, 울괴불나무, 금붓꽃	국립공원
태백산	강원	봄, 여름	갈퀴현호색, 얼레지, 나도양지꽃, 한계령풀, 선괭이눈, 피나무, 당개지치, 털취손이, 주목	도립공원
제주도	제주	봄, 여름, 가을	새끼노루귀, 눈개쭉부쟁이, 세바람꽃, 한라부추, 설앵초, 바늘엉겅퀴, 시로미, 한라고들빼기, 구상나무, 팽팡나무	

참고자료 : <사계절 꽃산행> 현진오 지음, 공리출판

철에는 그나마 행사가 이루어지지만 여름이나 가을에는 계획된 행사가 거의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는 야외에서 자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시기는 봄부터 겨울까지 다양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표 5).

생태여행을 이끌어갈 안내자 확보도 과제 가운데 하나다. 숲 안내자 교육 등을 통해서 배출된 인력들은 식물종에 정통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식물 생태여행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 그렇다고, 석박사 전공자들이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동북아식물연구소의 경우에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한 전현직 교사들을 활용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식물 관련 생태여행이 산업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안내자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런 면에서 식물 생태여행 안내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 마련이나 지원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생태여행의 정의를 명확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즉, 좁은 의

미의 생태여행이나 넓은 의미의 생태여행이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대중 관광으로서의 생태여행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태여행을 기존 관광산업의 대체산업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한 것이다. 따라서, 생태여행 활성화를 위한 업계 지원시에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NGO가 운영하는 식물 관련 생태여행도 있는데, 식물보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며, 생태계 구성원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궁극적으로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식물종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다. 즉, 좁은 의미의 생태여행을 실천한다는 면에서 사회적으로 볼 때 의미가 크다. 하지만, 생태여행 자체가 단체의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생태여행에 대한 안목을 가진 단체 실무자가 거의 없고, 자원 봉사하는 전문가 또는 일회성 강사를 안내자로 선임하여 행사를 치름으로써 생태여행 프로그램이 지속적, 발전적으로 이루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